

“정확한 전달이 미사여구에 앞선다”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글쓰기 가르쳐준 윌슨 교수

최재천 |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미국에 유학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다.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읽고 있던 논문에 그리 자주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오자 한 교수가 열린 사전을 뒤지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주 쓰는 단어의 발음도 잘 몰라 늘 사전을 끼고 살아야 했던 나였지만 자기 나라 말의 발음부호를 확인하려 사전을 뒤지는 그 교수의 모습은 신기할 뿐이었다. 그리곤 내심 우리 한글의 우수함에 혼자 슬며시 어깨를 으쓱거렸다.

우리말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발음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전을 뒤져야 하는 불편함은 없지 않은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한글로 글을 써서 발표를 하거나 방송에서 술술 우리말을 구사하는 것만 보더라도 한글은 진정 ‘어린 백성들’이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훌륭한 언어다. 미국에서 강산이 거의 두 번이나 바뀔 만큼 살았어도 내가 쓰는 영문에는 아직도 그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실수들이 많아 낮이 화려거린다.

경제적인 언어구사에 사로잡혀

한글의 우수함은 이제 세계가 다 아는 일이다. 대단히 과학적인 언어라는 칭송이 자자하다. 그런데 왜 내가 읽는 학생들의 보고서나 동료 학자들의 연구계획서들은 온통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들로 뒤범벅일까.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는 문장들이 너무도 많다. 한 문장 안에서 능동형이 갑자기 수동형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무슨 못된 성질인지는 몰라도 나는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대하면 그게 설령 글의 첫 문장일지라도 그냥 덮고 싶어진다.

어려서부터 간결한 문장들에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인지 시를 산문보다 좋아했다. 소설도 장편보다는 훨씬 긴박감 있는 구성과 간결한 문체로 짜인 단편이 좋았다. 특별히 김동인, 김유정, 그리고 황순원의 단편들을 좋아해 몇 번이고 되읽으며 흥내를 내곤 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샘터》에 연재되던 최인호의 콩트들을 좋아했다. 그들의 문장이 보여주는 알미울 만큼 냉정한 경제성이 늘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문학도의 꿈은 꺾지 못했지만 요즘 나는 그 어느 문인 못지 않게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글쟁이 과학자가 드문 덕에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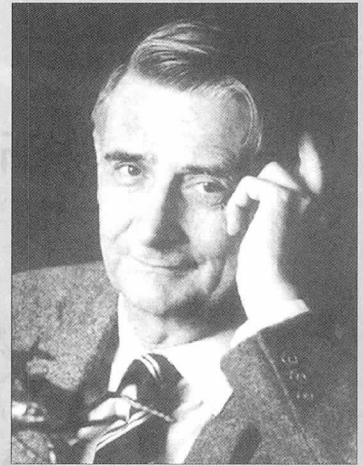
넘은 복을 누리고 있지만 한 가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신념이 있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글을 써야 한다는 믿음이다. 모든 의사소통 수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듯 글도 결국 남을 설득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확한 전달은 아름다움에 앞선다. 정보의 전달을 해치는 미사여구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교수가 된 후에도 문장수업 받은 윌슨 박사

나는 미국에서 영문으로 글을 발표하며 정확한 문장을 쓰는 훈련을 받았다. 영어로 글을 쓰며 내가 본받은 글 스승은 다름 아닌 하버드대의 내 지도교수였던 윌슨(E. O. Wilson) 박사다. 나는 그에게서 과학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문학도 사사한 셈이다. 윌슨은 지금 많은 서평가들로부터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는 저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얼마 전에 번역된 《인간 본성에 대하여(On Human Nature)》(사이언스북스)나 머지 않아 번역돼 나올 《지식의 대통일(Consilience)》을 읽어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듯 그는 맛깔스러움을 잃지 않으며 정보도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처럼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문장으로 존경받는 윌슨에게는 한 가지 흥미로운 비밀이 있다. 어려서부터 산과 들에서 관찰한 자연의 모습을 기록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그였지만, 더욱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자연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는 교수가 된 후에도 따로 가정교사를 두고 문장수업을 받았다. 적어도 논리적 글쓰기는 충분히 배워서 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예다.

어느 학문이든 마지막에는 결국 글쓰기가 좌우한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글을 잘 써야 한다. 그 요묘한 자연의 섭리를 쉽고 간결하며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이 어찌 간단할 수 있겠는가. 컴퓨터 게임도 기술이 아니라 결국 시나리오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한다. 디지털 시대에 살게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글쓰기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최근 논술을 포기한 서울대의 결정은 한 마디로 경솔한 것이었다. 하버드대를 비롯한 세계 명문들은 모두 인문학을 중심으로 또다시 뭉치고 있건만.●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문장구사로 유명한 하버드대의 윌슨 교수(사이언스북스 사진제공).